



IV. 2015년 주요 역점시책



1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산업 육성

2 농·축·수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

3 매력있는 관광·문화산업 육성

4 활기 넘치는 지역개발 촉진

5 쾌적한 자연환경 보전·관리

6 촘촘한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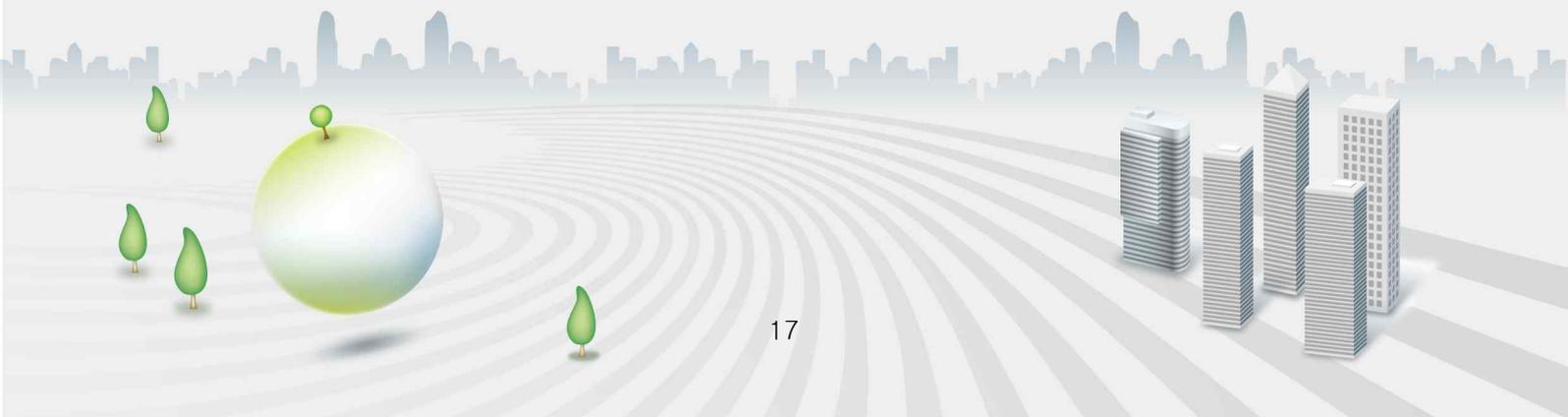
7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도정 구현





1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산업 육성

- 청년들이 선호하는 매력적인 일자리 창출
-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 전개
-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
-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및 R&D 기반 구축
-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강화



1

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산업 육성

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,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신성장동력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.

1

청년들이 선호하는 매력적인 일자리 창출

【 일자리 창출 목표 】

- 2015년 : 고용률 68%, 취업자수 9천명, 청년 일자리 4천개 증가, 상용근로자 35%
- 민선6기: 고용률 70%, 취업자수 5만명, 청년 일자리 2만개 증가, 상용근로자 40%

□ 전남형 청년일자리 지원서비스 확대

- 맞춤형 인력 양성과 취업 지원서비스 연계 지원
 - 산업현장의 구인수요를 반영 127과정, 4,000명 양성('14.대비 10% 증)
 - 전문상담기관이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등을 대상으로 취업주기별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업성공 패키지서비스 도입(1,000명 취업 연계)
- 정규직 전환율(72%)이 높은 '전남형 청년인턴사업' 대폭 확대
 - ('14년) 143명 → ('15년) 300명 → ('18년까지) 500명
- 취업지원 기관별로 분산된 취업정보를 전남일자리종합센터 중심으로 통합해 지역내 구인·구직정보 허브(Hub)화
 - 구직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-취업상담-SNS를 통한 구직정보제공-구인 기업 면담알선-중소기업 탐방 프로그램-청년인턴사업 원스톱 지원
 - 청년취업지원단 신설 등 기능보강 및 성과 중심 취업박람회 운영
- 지역 청년인재들의 창조적 아이디어와 활동을 통해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창업설계 밀착 지원
 - 벤처동아리(30개), 대학 창업보육센터, 벤처형 농업 청년창업가 등

□ 혁신도시 청년 일자리 기반 조성

- 혁신도시에 창출될 ICT(정보통신기술) 일자리를 지역 청년에게 제공하기 위해 ICT 전문인력 2,000명 양성
 - '15~'18, 에너지시스템 제어, 프로그래밍 등 6개 과정
 - 수요기업과 우선채용 MOU 체결, 청년 인턴 사업 우선 지원
-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공동으로 취업 설명회(2회)를 개최하고, 「빛가람 일자리 정보센터」 확대 운영(1명 → 3명)

□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생태계 구축

- 중간조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「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」 설립 운영
 - '15. 1. 통합지원센터 개소(14명), 개별단위 중간지원조직 일원화
 - 자금·홍보·판로확보 등 애로 해결 전담, 생애주기별 맞춤형 컨설팅 제공
- 사회적경제기업의 시장진입 기반 마련과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해 사회적경제 전용 금융상품 신설 운용
 - 전남신보에 3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상품 개설(도비 3억원 출연, 100개 기업 수혜 예상)
 - 경영자금(1.5~2%)·시설자금(3%) 저리대출 및 신용보증기준 완화
- 판로 지원을 위해 「공공기관 구매계획 및 실적공시제」를 운영하고, 제품 디자인 개선 등으로 민간시장에서의 제품 경쟁력 확보
 - 공공 구매시장을 연차적으로 확대 : ('15) 80억원 → ('18) 120억원
 - 디자인컨설팅 지원, 공동판촉전(10회), 녹색나눔회원 확보(1만명)

□ 일자리 정책 평가·환류시스템 본격 가동

- 일자리 정책을 총괄 심의·조정하는 「일자리정책심의위원회」 설치·운영
 - 도정 주요시책 및 투자사업, 일자리사업 등 심의·조정(분기별 1회)
- 일자리 목표공시제 대상사업 및 5억원이상 재정사업에 대해 「일자리 목표관리제」 도입
 - 우수부서 균형성과평가제도(BSC) 반영, 우수 직원 포상 및 인사 우대
- 대규모 투융자 사업('15년 20건)에 대해 전남발전연구원과 공동으로 「일자리 영향평가」 실시(고용의 질, 지속가능성 등)
 - 일자리정책 개선안 심의확정, 정책 재설계 권고 등

2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 전개

【 투자유치 목표 】

- 유치 기업수 : ('15) 300개 → (민선 6기) 1,000개
- 투자유치 도비 보조금 : (민선 5기) 연 5억원 → (민선 6기) 연 60억원
- 투자유치 기여 보상금 : '14년 대비 50~80% 상향 조정

□ 도민과 공직자의 기업유치 역량 결집

- 도 및 산하기관, 시·군 공동 목표 설정·관리 : '15년 300개 기업
 - 투자금액 10억원 이상 견실한 중소기업, 강소기업, 중견기업 등
- 도·시군 역할 분담 및 2만여 공직자의 네트워크·정보공유
 - (도 및 산하기관) 계획 입지 중심의 중견기업, 해외기업 유치
 - (시군) 지역내 창업·증설 투자기업 및 중소기업 유치
- 투자유치 공무원을 PM으로 지정, MOU 체결기업 투자실현율 제고

□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 및 홍보

- 맞춤형 산업단지 조기 개발 및 기반시설 지원
 - 산업단지 27개소(국가 3, 일반 24), 농공단지(10개소)
- KTX 개통, 혁신도시 공공기관 입주 등 달라진 투자환경을 적극 홍보하고, 고용 중심의 투자보조금 확대(연 60억원 내외)
- 지속가능한 노사 상생·화합 문화 정착으로 산업평화 지역 8년 연속 유지 및 기업하기 좋은 이미지 홍보

□ 빛가람 혁신도시 「5·6·700」 기업유치 프로젝트 추진

- 5대 기관*과 협력해 '15년부터 6년간 연관기업 700개 유치
 - 에너지-ICT 관련 기술선도기업 집적화, 정부지원 발굴 및 사업화
 - * 한전, 한전KDN, 우정사업정보센터, 한국인터넷진흥원, 한국콘텐츠진흥원
- 한전 등 전력그룹 간 기업유치 정보공유 및 연계 활동 구축
 - 정보기술유치팀 설치·운영, 연관기업 리스트업(4,000개), 방문 IR(연 45회)
 - 협력 및 연관 업체 대상 「투자유치 공동설명회」 개최 (연 2회)

□ 석유화학산업의 고부가가치화

- 성장의 한계에 직면해 있는 석유화학산업을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「기능성화학소재 클러스터」 구축
 - 기능성 화학 소재 개발 및 연관산업 육성(세풍산단, '15~'19, 1,310억원)
- 여수 국가산단 주변지역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권 보장을 위해 석유화학산단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법률 제·개정 추진
 - 지정범위, 관리체계, 지원범위, 자원, 개별법 개정 건의 등

□ 철강산업의 경쟁력 제고

- 철강, 금속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,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「뿌리기술 지원센터」 구축
 - 파일럿 플랜트 구축, 장비활용 기술 지원(해룡산단, '15~'18, 261억원)
 -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('15~'17, 90억원, 도내 700여 뿌리기업 지원)
- 광양제철~여수산단간의 '부산물 교환용 해저터널' 구축 지원으로 신사업 창출 및 운송비 절감
 - 해저터널(4km, '15~'18, 민자 약 2,400억원), 연간 1,200억원 생산원가 절감 효과

□ 조선·해양산업의 다각화

- 조선·해양산업의 신성장 분야인 해양케이블 시장 진출에 필요한 인증 시험평가 등을 지원할 연구센터 구축
 - 해저케이블 시험평가 인증, 생산기술 개발(대불산단, '14~'19, 265억원)
- 중소 조선소 건조능력에 적합한 에너지 절감 중소형 특화선종 개발
 - 벌커, 탱커, 컨테이너선, LNG빙커링 등 5개 특화선종('14~'19, 93억원)
- 조선·해양플랜트, 해양레저 관련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해양 융복합소재 산업화 추진(전남, 부산, 제주 참여)
 - 해상구조물, 선박부품 등 해양관련 친환경 소재 개발('15~'20, 888억원)

□ 생물산업 특화 육성

- 국내 최초로 지정된 화순 백신산업 특구 내에 백신산업 지원 기반을 구축하여 국가 백신산업 집적지로 조성
 - 백신산업의 글로벌 산업화 기반 구축(미생물실증센터, '16~'20, 950억원)
 - 생물 의약품 연구원내에 세포배양 생산라인 클린룸 확충('12~'20, 50억원)
- 전남지역 비교우위 특산자원을 활용하여 국내 신규시장 창출 및 투자유치 활동 강화
 - 기능성 특산자원 산업화('14~'16, 30억원, 생물자원의 기능성 규명 등)
 - 천연물 의약품원료 위탁생산시스템 구축('15, 30억원, 비임상·임상 시료생산)
 - 바이오 상용기술 고도화 플랫폼 구축('15~'20, 196억원, 기술개발·장비구축 등)

□ 우주 항공 등 첨단산업 육성

- 고흥 우주·항공센터와 연계하여 과학 로켓개발 R&D, 국가 비행종합시험장 구축 등 지역특화사업 추진
 - 과학로켓센터 등 3건 확정 추진('14~'18, 857억원)
- 영광 대마 전기자동차 산업단지를 타 지역과 차별화 된 친환경 미래자동차 산업(Micro-모빌리티) 클러스터로 조성
 - Micro-모빌리티 신산업 생태계 구축사업 등 2건 확정 추진('14~'18, 632억원)
- 서남권 전통세라믹 산업을 고부가가치 첨단세라믹 산업으로 육성
 - 세라믹산업 생태계 조성('15~'19, 250억원), 나노융합소재 산업 육성('15~'16, 42억원), 세라믹원료소재 기반 구축('12~'16, 193억원)
- IT전자·LED·신재생에너지·우주항공 등 전남 신성장 동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이크로 응용 레이저 시스템 구축
 - 기반구축('11~'16, 250억원), 입주기업(5개사), 투자유치(6개사)
 - * '18년까지 마이크로 레이저 관련기업 20개 육성(2천억원 매출, 200명 고용)

□ 신재생에너지산업 집중 육성

- 비교우위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산업 선점
 - 마이크로 그리드 연구·지원센터 국가사업 유치('15~'18, 260억원)
 - 국가 해양에너지 실험역 실증시험장 유치('16~'20, 280억원)
- 신재생에너지 자립 섬 및 육·해상 풍력발전단지 조성
 - 신재생에너지 자립 섬 조성 18개 섬(준공 4, 추진중 14)
 - 100MW 육상 풍력 시범사업('15~'16, 2,700억원), 국내 최대 규모의 300MW 해상 풍력 시범사업 본격 착수('15~'19, 1조 5,000억원)
 - 풍력발전기 시스템 성능평가 센터 구축·운영('11~'20, 135억원)
- 공공기관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
 - 태양광설치 등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(12개소, 33억원)
 - LED 교체, 단열창호 등 지역에너지 절약사업(11개소, 35억원)

□ R&D 역량 강화

- 지역 맞춤형 연구개발 사업 투자 확대(신규 40억원)
 - 전남테크노파크 주관, 비교우위 자원 기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추진
- 지역 산업발전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R&D 인프라 구축
 - 빛가람 사물인터넷(IoT) 혁신클러스터 구축('15~'18, 1,106억원, 실증사업 등)
 - 비파괴 검사 기술 연구기반 구축('16~'20, 350억원, 검사기술 장비 개발 등)
- 한전과 동반 이전한 전력기관의 지역 산학연 R&D 투자계획(연간 100억원 이상)과 연계해 미래유망 아이디어 집중 발굴
 - '에너지밸리 구축협의회' 운영(연구개발, 복합단지, 특화산업 등 3개 분과)

□ 경제주체 마인드 제고

- 지역경제인 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해 「월례경제대화」 운영
 - 매월 경제이슈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역 경제인들과 정보교류·소통
- 지역경제 주체의 경제 마인드 함양을 위한 「전남 경제포럼」 운영(분기)
 - 경제동향, 지역경제 문제점 토론 등을 통한 기업체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
- 지역 주도적 경제정책 수립을 위한 '전남 경기종합지수' 개발·운영

□ 독자적 성장기반을 갖춘 강소기업 육성

- 성장의지와 잠재력이 있는 유망 중소기업의 제품 경쟁력 제고와 판로 확대를 위해 **중소기업 맞춤형 지원(20개사)**
 - 성장전략 수립, R&D과제 성과물 사업화, 맞춤형 마케팅, 생산공정 개선 등
- 대기업(GS)과 연계해 지역 중소·중견기업 성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「**전남 창조경제 혁신센터**」 구축 운영
 - 창조산업 창출, 창업 허브 구축, 강소기업 육성('15. 3월, 여수)

□ 중소기업 자금·판로지원 확대

- 중소기업 **육성자금 용자규모 대폭 확대** 및 도 기금 대출금리 인하
 - 용자 규모 확대(1,550 → 2,100억원), 대출금리 인하(3.41 → 3%)
- **공공기관 구매실적 공시제**를 본격 실시하고, **온라인 입점 지원**
 - 구매실적 공시(연 2회), 도·시군 25개기관 구매 목표율 70%
 - (홈쇼핑) 7→10개사, (인터넷마켓) 68→100개사, (신문홍보) 85개사
- 해외 신흥 수출시장을 타깃으로 **공세적인 홍보 마케팅** 전개
 - 무역교류단 확대 파견(8회, 72기업), 해외 공산품박람회 참가 지원
 - 공산품 개별바이어 초청 지원, 수출초보 기업 지원(7개사업, 7억원)

□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 강화

-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**금융지원 확대**
 - 신용보증 공급규모 확대(3,600→ 4,000억원), ‘햇살론’ 보증재원 36억원 출연
 - 소상공인 창업자금 확대(100→200억원, 3.0%의 이자 지원)
- **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주차장 설치 지원**(19개 시장, 239억원)



2 농·축·수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

- 저비용·고소득 농업기반 구축
-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농업 육성
- 미래 농업인력 육성
- 농가 경영안정 강화
- 해양수산업의 경쟁력 강화
- 농·수산업의 FTA 대응대책 추진



2

농·축·수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

한·중 FTA 등 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생산비 절감과 유통 개선 등 저비용·고소득 농업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.

1 저비용·고소득 농업기반 구축

□ 생산비 절감기술 개발과 농업정보 제공

- 경쟁력이 있는 주요 작목별 생산비 절감기술 개발·보급
 - 생산비 절감 기술개발(벼, 콩, 등 11개 작목), 시범단지 조성 87개소
- 생산비 절감 경영모델을 개발·실용화하고, 우수사례 발굴·확산
 - 경영모델 실용화(5개소), 우수사례 발굴(10개 유형), 교육 홍보자료 활용 등
- 농업정보를 신속히 제공해 적정 재배 및 출하시기 조절 유도
 - 주간·월간 「전남농업정보」 제공, 농업정보 메신저(85명) 운영, 홈페이지 구축

□ 첨단화·규모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

- 시설원예 농가 경영비 경감을 위해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
 - 지열, 다겹보온 커튼 등 에너지 절감시설(118ha)
- 원예 농산물의 조직화·규모화를 위한 가공시설 및 전문생산단지 지원
 - 원예특작 생산·유통 인프라 구축(5개소), 원예전문생산단지(3개소)
-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운영
 - 임대사업소 확대 설치(45 → 55개소), 임대사업소 간 정보 상시 공유

□ 농·축산물 판로 확보 및 유통 개선

- 수도권 학교, 병원 등 대량 소비처 발굴 및 고정납품 확대
 - 대형유통업체 납품 : ('14) 73업체, 4,300억원 → ('15) 80업체, 4,400억원
- 생산자와 소비자 간 다양한 직거래 추진
 - 직거래장터(150회),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(25개소), TV 홈쇼핑(13개업체)
-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(68억원) 및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(4,181개소)

2

유기농 중심의 친환경농업 육성

- **신뢰받는 유기농 생산기반 확충** : '14) 5천ha → '15) 6천ha
 -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중심의 유기농 단지 조성
 - 농가교육 확대(1만명), 잔류농약 검사확대(320종), 유기농 단지 사업비 인상(1,200천원/ha)
 - 친환경농업 필지에 인증 표시 깃발 설치(유기농-빨강, 무농약-보라)
 - 저비용 유기농 실천기술 농가 보급과 실용화 지원
 - 매뉴얼 개발(15작목), 유기농자재 개발(10종), 시범단지 육성(12개소) 등
 - 쌀 중심에서 채소·과수·임산물 등으로 유기농 인증품목 확대
 - 품목별 친환경농업직불금 차등 지원, 유기농 재배기술 교육과정 운영
 - 품목별 주산지 중심, 친환경농업 거점단지 조성
 - 부추(광양), 쌈채소·토마토(담양, 장성), 배(나주, 영암), 사과(곡성, 장성) 등

- **제값받는 친환경농산물 유통시스템 확충**
 - 친환경농산물 물류비 절감을 위한 물류시스템 구축
 - 물류대행업체 위탁, 수도권에 친환경 농산물 대규모 집배송 실시
 - 나주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건립('15. 3월 착공, '16년 말 완공)
 - 안정적인 판로 확대를 위해 다양한 유통채널 확보
 - 프랜차이즈점(107개소), 도내 학교급식 유기농 쌀 공급(303천명, 614억원)

- **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실천**
 - 축사시설 현대화 및 「축산물 종합유통센터」 건립
 - 축사시설(200개소, 622억원), 도축·가공·유통 종합시스템 구축(600억원)
 - 가축 사료비 절감을 위해 조사료 재배 지원(65천ha)
 - 100ha 이상 고품질 조사료 재배 전문단지 조성(17개소/12천ha)
 - 가축사육환경 개선 등 고병원성 AI 재발방지 근본대책 강구
 - 사육환경 개선과 농장 자율방역 강화, 「국립 조류인플루엔자(AI) 연구센터」 유치

3 미래 농업인력 육성

□ 농업 후계인력 양성 및 전문교육 강화

- 미래 농업을 이끌어 갈 글로벌 경영역량을 갖춘 **농업 후계인력** 육성
 - 젊고 열정있는 후계농업경영인(만 18세~50세 미만) 선정·육성(250명)
 - 대학 졸업자 대상, 신지식 학사농업인(만 50세 이하) 선정·지원(60명)
 - 농대·농고생에게 청년 농업 성공사례 전파, 창업 설계 과정 운영(150명)
- 품목별 전문농업인 육성과 실습 중심의 **융·복합화 과정 교육** 운영
 - (품목별) 농업마이스터대학 357명, (융·복합화) 최고농업경영자과정 114명
- 차세대 소득창출형 **청년사업가** 성공모델 발굴·확산
 - 생산·가공·판매·마케팅 등 맞춤형 창업 전문 컨설팅 지원(11명)

□ 귀농·귀촌인 유치·지원 강화

- 귀농·귀촌 유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**유치활동** 적극 전개
 - 귀농·귀촌 지원센터 운영(15개소), 귀농·귀촌 홍보 및 상담, 정보제공 등
 - 예비 귀농·귀촌인을 대상으로 권역별 맞춤형 유치활동 전개
- **귀농·귀촌인의 농촌생활** 체험공간 제공 및 안정적 정착 지원
 - ‘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’ 조성(구례), 귀농의 집 운영(30개소)
 - 귀농인 농업창업(2억원 한도, 2%) 및 주택구입자금(5천만원, 2.7%) 지원
- **도시민 농촌유치지원 프로그램** 운영 및 정보 제공
 - 귀농·귀촌 팸투어, 귀농인 모임체 활동 지원,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

□ 역대 부농 1만호 육성(‘15년 5천호 → ‘19년 1만호)

- **역대 부농 육성과 고소득 창출** 경영모델 개발
 - 잠재 고소득 농업인(5천만~1억원) 대상 맞춤형 경영·마케팅 교육
 - 생산·경영·마케팅을 포함한 품목별, 소득 수준별 모델 개발·보급
- 「**창조농업인회**」 연찬회, 정보교류 활성화 지원 및 홍보 강화
 - 역대 부농 모임 활성화 및 연찬회 개최, 사례집 배포 등

□ 농가 경영안정 지원

- 농가 소득안정과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직불제 확대
 - 쌀 소득보전 고정직불금 단가 인상 ('14.) 90 → ('15.) 100만원/ha
 - 밭 직불금(논 이모작) 확대 ('14.) 40 → ('15.) 50만원/ha
- 태풍·가뭄·홍수 등 자연재해 대비,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확대
 - 대상품목 확대 : '14.) 43개 → '15.) 46개 * 시설 무, 백합, 카네이션 추가
- 농어촌진흥기금의 장기·저리 융자 지원(500억원, 이자율 1%)
 - 개인 1억원, 법인·신지식 농업인 2억원, 가공·유통업 10억원 한도내 지원

□ 농업의 6차 산업화 촉진

- 지역 대표자원과 연계, 생산·가공·관광이 접목된 6차산업 기반 조성
 - 향토산업(15개소), 지역전략 식품산업(3개소) 육성
- 농산물 제조·가공을 통한 고부가가치 식품(소재)산업 육성
 - 친환경식품산업 인프라 구축(15개소), 식품 반가공센터(4개소)
 - 유기가공식품 인증(111업체), 전통발효식품(6개소), 마을반찬산업(10개소)
- 품질인증제를 통한 소비자 신뢰 제고와 판로 확대
 - 도지사 품질인증(324개 업체, 1,077품목), 전통술 품질인증(20개 제품)

□ 농촌자원을 활용한 농외소득 창출

- 지역특색에 맞는 경관작물 재배 농가에 「경관보전 직불금」 지급
 - 자운영, 유채, 메밀 등 6,498ha, 101억원
- 도·농교류 촉진을 위한 농촌체험 휴양마을 운영 활성화
 - 사무장 지원(65명), 보험가입 지원(100개소), 서비스·안전 교육(3,700명)
- 농촌관광 자원화를 위해 농업유산 2개소*를 「국가중요 농업유산」 지정 추진
 - * 보성 계단식 차밭, 화순 붓도랑과 다랑논

□ 지속 가능한 바다환경 조성

-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양식어장 환경 개선과 자정능력을 갖춘 자연 친화형 양식어장 확충
 - 양식어장 재배치(해조류↔전복, 134ha), 생태순환 복합양식단지 조성(4개소)
 - 바이오 플락(Bio Floc) 기술을 활용한 친환경 고밀도 양식장 시설 확충(2개소)
- 양식장 밑바닥 사료찌꺼기 퇴적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공급 확대 : ('14.) 11% → ('15) 15%
- 해양쓰레기 적기 수거·처리 및 종합처리장 시설 확충(91억원)
 - 어촌계, 기관·사회단체 등의 자율 참여 유도
 - 신안 압해권 쓰레기 종합처리장 준공(114억원, '16) 후 완도·진도 시설 추진

□ 저비용·고소득 수산업 육성

- 효율적인 어장관리를 통한 수산물 생산비용 절감
 - 고효율 에너지 절감장비(폐열 회수, 지열식 히트펌프 등) 지원(123억원)
 - 연간 사용일수가 적고 가격이 비싼 양식장비 임대(2개소, 18억원)
- 수산물 유통시설 현대화와 가공시설 집적단지 조성, 유통비용 절감
 - 산지거점유통센터(FPC) 조성(1개소), 소형 저온저장시설 확충(167개소)
 - 수산물 공동가공시설 확충(4개소), 산지가공시설 확충(31개소)
- 생산성 향상과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수산양식 기술개발
 - 지역 특화 품목 : 참조기 양성기간 단축, 부세 양식기술 등(7종, 16억원)
 - 아열대성 기후변화 대응 : 해수관상어 종묘생산, 능성어류 종묘생산 등(5종, 2억원)
- 천일염의 생산·가공 시설 확충으로 명품화·고급화 추진
 - 천일염 저장 가공시설(11개소 98억원), 염전 바닥재 등 시설 개선(179억원)
- 미래 어촌을 선도할 수산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
 - 고교특성화 프로그램 운영(3개교), 수산벤처대학 운영(50명) 등

□ 자연재해에 강한 안전 수산업 육성

- 노동력 절감을 위한 양식시설 현대화 추진(200개소, 450억원)
 - 노후 목재가두리를 내파성가두리로 교체, 자동화 설비, 관리선 크레인 등
-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확대 및 대규모 융·복합 양식단지 조성
 - 재해보험 가입 확대 : 18종 → 21종(뿔, 농어, 가리비 추가), 45% → 55%
 - 다단식 순환여과양식수조, 태양광 시설, Bio 정수시설 등(1개소, 30억원)
- 적조피해 최소화를 위한 체계적 관리 및 방제 시스템 운영
 - 적조 우심지역 어장 예찰 강화, 민관 대응체계 구축 및 정보 공유
 - 해상가두리 안전해역 이동, 전해수 살포기 설치 등 방지대책 추진

□ 어촌 정주여건 개선

- 소득기반 확충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
 - 어장 진입도로, 간이 위판장 건립 등(11개 권역, 94억원)
- 어선의 안전한 육지 인양(접안)을 위해 다목적 인양기 및 다기능 부잔교 설치
 - 다목적 인양기(200대, 102억원), 다기능 부잔교(111대, 111억원)
- 섬 지역 어가 수산직불제 확대 및 불편한 생활 여건 개선 지원
 - 육지 어업인과 소득 차액 지원(11,912어가, 60억원)
 - 여객선 및 차량 운임 지원(107억원), LPG 등 생필품 지원(40여종, 17억원)

□ 다기능 항만·지방어항 개발·육성

- 광양항을 글로벌 TOP 10 항만으로 육성
 - 화물의 불균형 수요 개선을 위해 컨부두 → 일반부두 추가 전환(2-1부두, 4선석)
 - 초대형 선박(10만 TEU급 이상) 기항을 위해 대형 크레인 추가 설치(24열 3기, 360억원)
- 목포항의 권역별 특화 개발로 거점 항만 육성(616억원)
 - (신항) 자동차, 철재 / (북항) 수산 / (내항) 국제 마리나 / (남항) 해양관광
- 지방관리 무역항·연안항 및 지방어항 건설
 - 무역항·연안항 : 완도항 여객선 터미널 신축, 흥도항 동방파제 신축 등(6개항 434억원)
 - 진도항 배후지 개발 : 도로, 상수도, 택지개발 등(88억원)
 - 지방어항 : 기반시설 확충(13개항, 150억원), 노후어항 시설 보수(5개항, 10억원)

□ 한·중/한·뉴질랜드 FTA 타결 주요내용

○ 한·중 FTA('14. 11. 10.)

- 전체 농수산물 수입액 기준 30%를 '양허제외'

※ 양허제외율(수입액 기준, %) : 한-미 0.9%, 한-EU 0.2%, 한-캐 3.4%

- 농산물의 36.1%, 수산물의 13.8%를 초민감품목(양허제외, 저율할당관세)으로 분류
· (농산물) 쌀 고추, 마늘 등 581개품목 (수산물) 조기, 갈치, 오징어 등 87개품목

○ 한·뉴질랜드 FTA('14. 11. 15.)

- 협정 발효 후 15년 이내 대다수 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(즉시 철폐 48.3%)

- 농산물은 199개 품목 양허 제외, 쇠고기 긴급 수입 제한 조치(세이프 가드) 등 예외 수단 확보

□ FTA 타결 영향

(농 업)

○ 시장개방 확대 품목을 중심으로 직·간접 피해 예상

- 저율 할당관세(TRQ) : 대두, 참깨, 팥 등 / 관세 부분감축 : 김치, 들깨 등

○ 국내 농식품의 중국 시장 접근 기회 확대

- 10년내 관세 철폐 : 냉동 쇠고기·돼지고기·닭고기, 신선 사과·배·포도, 채소류

(수산업)

○ 저율 할당관세(TRQ) 품목을 중심으로 수입 증가 예상

- TRQ 품목 : 낙지, 미꾸라지, 바지락, 복어, 소라, 아귀, 조미 오징어 등

○ 국내 수산물의 대 중국 수출 확대 기회

- 10년내 관세 철폐 : 김, 미역, 넙치, 전복 등 62개 품목

□ FTA 대응대책

○ 정부 차원의 내실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·건의

- 기 건의한 「농업·농촌 활성화 지원 특별법」 제정 등 59개 과제 반영 노력 강화

○ 도 자체 품목별 경쟁력 제고 방안 등 FTA 대응 종합대책 마련

- FTA 대책위원회 운영(25명), 품목별 영향 분석 및 대책 수립



3 매력있는 관광·문화산업 육성

- 관광자원 개발 및 안내체계 정비
-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확대
- 문화·예술 진흥 및 문화산업 육성
- 스포츠 활성화와 도민 건강 증진
-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



3

매력있는 관광·문화산업 육성

비교우위의 관광자원 개발과 수요자 중심의 관광상품 운영으로 국내·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,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.

1

관광자원 개발 및 안내체계 정비

□ 비교우위 관광자원 개발

- 생태·자연자원을 활용, 지역 특성에 맞는 **관광자원 개발**(898억원)
 - 남해안 관광클러스터(3개소), 지리산권 광역관광 개발(10개소)
 - 생태·녹색관광자원(18개소), 문화관광자원(36개소), 관광지·관광단지(10개소)
 - 순천만 정원 제1호 ‘국가정원’ 지정 추진(정원산업 지원센터 건립 20억원)
- 해양관광과 레저 기능이 결합한 **해양관광 기반시설 확충**
 - 광양 해상공원(30억원), 강진 해양레저복합공간(6억원), 여수 해양낚시공원(5억원)
 - 요트마리나 클럽하우스(1개소), 인력양성(120명), 전용부두 건설(1개소)
- 문화·역사자원과 연계한 **‘도보 여행길’ 조성**
 - 「조선수군 재건로」 조성(구례~해남, 500km), 「이순신 명량 리더십 캠프」 상설 운영
 -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 등 도내 개설된 걷는 길(89개소, 2,035km) 사후관리·홍보

□ 관광안내시스템 정비·보강

- 호남선 KTX 개통에 맞춰 **목포·송정역에 전남관광정보센터 설치·운영**
 - 목포역은 목포시와, 송정역은 광주광역시와 공동 운영
- 결혼 이주여성을 외국어 통역요원 및 문화관광해설사로 양성
 - 매년 25명씩 '18년까지 100명 양성(중국 50, 일본 30, 기타 20)
- **관광안내표지판의 다국어 표기 조속 정비**
 - '15. 상반기까지 관광안내표지판 외국어 표기 오류 정비(690개소)
 - 관광안내표지판 신설 또는 개·보수 시 다국어 표기 의무화 지도

2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확대

□ 관광객 유치 인프라 확충

- 무안공항 정기성 전세기 취항 확대, 국제 크루즈선의 입항 유치와 기반시설 정비 등 관광 기반시설 확충
 - 정기성 전세기(200회 3만명), 크루즈선 유치(10항차 3만명)
 - 여수항 크루즈 종합안내센터 설치(7월) 및 크루즈 부두 정비(15만톤급 접안)
-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도내 중국 관련 문화유적 정비와 관광상품 개발·운영, 대형 쇼핑타운 조성 추진
 - 화순의 주자묘와 정율성 유적, 해남의 황조별묘 등 정비
 - 광양 LF아울렛('16년 개장), 나주 신세계 아울렛('17년 개장) 조성
- KTX,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·판매하고 문화전당안에 광주와 공동문화관 설치·운영
 - 정차역과 인근 시·군을 연계한 ‘기차타고, 버스타고’ 상품 운영
 - 광주 인근 시·군 시티투어 버스 운영 및 노선버스 문화전당 경유

□ 공세적인 홍보·마케팅 활동 전개

- 중국 중·서부 내륙과 일본·동남아 지역의 현지 홍보 활동과 병행하여 한류스타, SNS 등을 통한 마케팅 활동 전개
 - 한류스타를 활용 해외 공중파 방송 프로그램 제작·방영 및 SNS 홍보
 -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(씨트립)에 전남 여행상품 직접 판매
- 남도 비교우위의 다양한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·운영
 - ‘남도 여행 으뜸상품’ 및 관광지 순환버스 ‘남도한바퀴’ 운영
 - 중·고생 수학여행단 유치(전담 지도사 양성, 숙박·체험시설 안전점검 등)
- 관광 설명회, 팸투어, 홍보관 운영 등 홍보·마케팅 강화
 - 설명회 9회, 팸투어 20회, 박람회 관광홍보관 운영 7회 등
 - 계층별 특성에 맞는 온·오프라인 홍보활동 강화(SNS, 전남관광 앱 보급 등)

□ 문화 향유기반 확대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

- 동부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유권 신장을 위해 「도립미술관」 건립
 -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(3월) 실시, 건립위치와 규모 확정
- 1읍면 1도서관 조성(13개소) 및 「남도소리올림터」 운영 활성화
 - 도립국악단 공연 작품 다양화, 지역 문화예술단체 공연, 전국 우수공연 유치
- 영화관이 없는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영화 관람기회 제공
 - 「작은 영화관」 건립(광양, 해남), 「찾아가는 영화관」 운영(50회)
-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에 대한 다양한 창작활동 지원
 - (가칭)‘예술인 지원조례’ 제정('15.6월), 문예진흥기금 등 지원(29억원)
 - 문화예술인 창작지원 시범사업으로 「남도 역사소설」도 홈페이지 연재(주 1회)

□ 지역 문화·관광자원 활용, 글로벌 문화 콘텐츠 개발

- 오감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실감미디어기반 조성사업 추진
 - 기반조성센터 건립(혁신도시 내), 오감체험 콘텐츠개발, 기업집적화 등
- 지역 역사·문화자원을 활용한 글로벌 콘텐츠 개발
 - 조선 역사고도(나주牧) 관광자원화 및 체험형 콘텐츠 개발(26종)
-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협업체계 구축, ICT 분야 창업 활성화
 - 혁신도시 이전 ICT기관 연계 협력사업 발굴, 기업맞춤형 인력양성 등
 - 목포대, 순천대 등 지역 대학 연계 창업교육 및 청년창업 지원(25개팀)

□ 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광 명소화

- 체계적인 문화유산 전승·보존을 통한 역사가치 제고
 - 보수·정비(394개소), 문화자원 조사·발굴, 무형 문화재 전승·보존
- 비교우위 문화자원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
 - 서남해안 갯벌, 한국의 전통산사(선암사대흥사), 한국의 서원(필암서원) 등 7건

□ 스포츠 마케팅 강화

- 지역의 비교우위 자원을 활용, 동·하계 전지훈련팀 유치
 - 40개 종목 3,800팀, 연인원 740천명, 경제효과 750억원
- 2015 광주U-대회('15.7.3~7.14)의 성공적 개최 지원
 - 도내 9개 시·군 21개 경기시설 이용, 전남 연계 관광상품 운영
- 도내 골프장과 연계, 국내·외 관광객 골프 관광상품 운영
 - 국내 골프대회(16회), 중국동호인 골프대회, 남도골프투어 등

□ 지역특성을 살린 다양한 스포츠대회 개최

- 영암 국제자동차 경주장 상시 활용체제 구축
 - 국내·외 모터스포츠대회 유치, 경주장 시설 상시 활용(연 280일)
- 지역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규모있는 레저스포츠대회 개최
 - 산악자전거, 해변승마, 영산강 수상레저, F1스피드자전거 등 11개 대회
- 국제스포츠대회 개최로 관광 활성화와 지역 이미지 개선
 - 국제 철인 3종경기(10월, 1천여명),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(12월, 1천여명)
 - 다도해 국제 요트대회(10월), 국제 파워보트대회(10월) 등

□ 체육 경기력 향상과 생활체육 진흥

- 전국체전 한자리 수 순위 진입을 위한 우수 선수·체육팀 육성
 - 전문체육 육성, 도·시군 직장운동경기팀 운영 지원(27개팀 237명)
- 공공체육시설 확충과 생활체육 활성화
 - 지방체육시설(31개소), 생활체육시설(5개소), 소규모 체육시설(100개소) 등
 - 각종 생활체육 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(130개) 등 도민의 스포츠 참여 기회 확대
- 도민과 함께하는 전남 3대 체전 성공적 개최
 - 전남체전(4월, 진도), 장애인체전(6월, 무안), 생활체육대축전(10월, 무안)

5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

□ 2015 국제농업박람회

-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전남농업의 새로운 활로 모색과 관람객에게 농업의 미래와 가능성 제시
 - '15.10.15~11.1 / 20개국 350개 단체 / 관람객 70만명(외국인 3.5)
 - 창조농업, 힐링농업 등 12개 전시·체험관 운영, 농특산물 구매상담회 등
- 농업과 관광의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, 그 간의 박람회 개최 경험을 활용해 권위있는 국제행사로 도약

□ 2015 담양 세계대나무박람회

- 대나무 관련 산업·문화 교류 확대를 통해 대나무의 산업적 가치를 높이고 시장 확대 기반 마련
 - '15.9.17~10.31 / 40개국 / 관람객 90만명(외국인 2)
 - 대나무 문화·산업 국제교류, 학술행사, 전시 등
-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 강화
 - 박람회 기간중 전국 및 도 단위 행사·회의 유치, 홍보 및 마케팅 활동 지원

□ 2016 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

- 전남의 주요 산업에 디자인을 접목,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
 - '16.5.5~5.29 / 15개국, 100개기업 / 관람객 88만명(외국인 4)
- 박람회 관람객 및 관련분야 기업·디자이너 참가 유치활동 전개
 - 박람회 홍보활동, 참가기업 유치, 주제관 등 건축공사

□ 2016 장흥 국제통합의학박람회

- 자연치유 자원이 풍부한 전남을 통합의학 중심지로 육성
 - '16.9.29~10.31 / 40개국, 233기관·단체 / 관람객 95만명(외국인 4.7)
- 통합의학산업 클러스터 구축, 의료 관광객 유입 및 휴양산업 활성화
 - 기반조성, 박람회 홍보활동, 마케팅 활동(참가기업, 후원기업 발굴) 등



4 활기 넘치는 지역개발 촉진

- 신성장 거점 육성
- 지역 균형개발 촉진
- 산업단지 활성화
- SOC 지속 확충
-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



4

활기 넘치는 지역개발 촉진

지역발전을 견인할 성장거점 조성, 조화로운 지역개발과 광역 교통망의 지속 확충으로 고루 잘사는 전남을 만들겠습니다.

1

신성장 거점 육성

□ 빛가람 혁신도시 활성화

- 입주기관 임직원 및 주민의 정주여건 조기 확충으로 명품도시 조성
 - 공동주택 적기 공급('15년 2,871세대, 북측 진입도로 착공(6월), 빛가람 119안전센터 신설 (12월))
 - 호혜원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양돈농가 폐업보상(80억원, 4월까지)
 - 교육여건 개선(개원 4개학교 → '15년 이후 9개교) 및 대중교통 확충
 - 의료시설, 문화공간, 복합유통시설의 조기 확충
- 이전기관과 지역의 경제단체, 대학, 연구기관간의 연계·협력을 위한 「산·학·연 유치지원센터」 설치 추진
 - 기업, 대학, 연구소 등을 연계한 산학연클러스터 구축
 - 이전기관과 지역경제인들의 소통을 위한 '비즈니스 라운지' 조성
- 빛가람혁신도시 「공공기관장 협의회*」 및 지역발전협의회 운영
 - 조기정착 지원 및 연관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 상생발전 방안 모색

* 도지사, 광주시장, 교육감, 이전공공기관장 등 21명으로 구성('14.12)

□ 솔라시도 기업도시 선도사업 본격화

- 구성 지구 : 뉴라이프 시티(새꿈도시), 컨벤션센터, 골프장, 테마파크 등
 - 레저주택 500동 착수(18만㎡), 사유지 협의 매수('17년까지 완료)
 - 골프장 36홀 조성, 내부도로(25.9km) 개설, 녹지(100천㎡) 조성
- 삼호 지구 : 리조트, 골프장, 스포츠 레저단지, 승마장 등
 - 골프장 63홀 조성 (45홀-'15년말, 18홀-'16년 상반기 개장목표)
 - 사유지 협의 매수('15년 완료), 내부 진입도로 1.75km('16년 준공)

○ **삼포 지구 : 자동차 튜닝 밸리 조성**

- 차부품 고급 브랜드화 연구개발사업(786억원, 2016년 까지)
 - 성능연구개발센터 건축('15. 1.~'16. 2.) 전용장비 도입 8종 등
- 튜닝산업 지원시스템 구축 및 튜닝부품 기술개발(384억원, 2017년 까지)
 - 기업지원동 건축 ('15. 10.~'16. 12.), 시험·평가 장비(21종) 구축 등
- 튜닝기업 투자유치(100개 기업), 자동차 튜닝밸리 조성('20년 까지)

○ **투자여건 개선을 위한 진입도로 개설공사(3,036억원, '15~'20)**

- 삼호읍 서호C~해남군 산이면 지방도 806호선(10.8km), '15년 하반기 착공

○ **공유수면 매립 준공 총사업비 정산제도 개선 추진**

- 준공매립지를 기업도시 지정 당시 현황(농지)으로 평가·정산(관련법 개정 추진)

○ **지구별 공유수면 매립 실시계획을 수립·승인을 득하고, '16년 준공을 목표로 '15년 호안, 매립, 배수시설 등 착공**

- 기업도시 기반시설로 대체 가능한 공정 간소화 건의

□ **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(GFEZ) 활성화**

○ **광양만권의 주력산업과 연계된 미래 소재산업단지 조기 개발**

- **세풍 산단** : 미래형 소재산업 R&D 기반 및 생산집약 발판 마련
- **해룡 산단** : 전자부품 및 전기장비 등 첨단업종 중심의 특화단지 조성

○ **배후지 내 정보·물류·교역이 가능한 복합형 Biz-Area 지대 조성**

- 운송, 보관, 포장, 하역, 조립가공 등이 결합된 고부가가치 물류업체 유치

○ **글로벌 수준의 교육·의료환경을 제공하고 다양한 주거·편의 시설 확충을 통한 국제적인 관광·정주여건 조성**

- 신대배후단지 내 국내·외 합작 의료법인 설립 및 종합병원 개원
- 외국인학교 및 국내·외 우수대학(원), R&D센터 등 유치

○ **맞춤형 투자유치활동 적극 전개, 입주기업 지원 서비스 강화**

- (국내) 신소재·첨단제조업 등 / (국외) 일본권 부품소재, 중화권 U턴기업 등
- 기능인력 양성(100명), 기업 현장방문 애로 해결, 인허가 원스톱 처리

2 지역 균형개발 촉진

□ 남해안권 개발 및 행복생활권 사업

-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('10~'20)의 선도·중점사업 추진
 - 진도항 배후지 개발('13~'17, 432억원), 고흥 우주랜드 조성('13~'16, 166억원)
- 섬, 해안선 등 자연자원을 활용한 '서남해안 해양관광 육성' 사업을 정부의 지역특화발전 프로젝트로 추진('14~'18)
 - 전남 요트마린 실크로드 조성 등 6개 사업의 실시설계·시설공사 착공(367억원)
-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내실 추진
 - 서남부권 취약지역 청소년 문화체험 등 6개 사업('14~'16, 85억원)
- 생활·위생·안전 인프라 등 취약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'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'('15~'17, 전국 550억원) 공모 적극 대비

□ 도시재생사업 추진

-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지역의 역사성과 문화적 특성을 살리는 도시재생사업 추진 ※ 전국 13개소 중 2개소 선정
 - 목포(유달산 주변 공·폐가 활용 예술인마을 조성, '14~'17, 200억원)
 - 순천(향동, 중앙동 일원 노후 주거지역 친환경마을 조성, '14~'17, 200억원)
- 국토부 '15년 공모사업 대비 및 대상지역 적극 발굴
 - '15. 공모사업 준비 중 : 7개 시·군(여수, 나주, 광양, 구례, 보성, 함평, 완도)

□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정비 추진

-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*과 농어촌 주택개량** 사업 지속 추진
 - * 6개소 : 계속 4(순천·담양·영암·완도), 신규 2(순천 오산·오림, 진도 진도읍)
 - ** 주택개량 1,464동, 빈집정비 1,289동, 슬레이트 처리 지원 1,000동

3 산업단지 활성화

□ 기존 산업단지의 고도화(혁신산단)

- 대불산단은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·기술·문화가 함께하는 혁신사업 추진('14~'23년, 1,825억원)
 - 조선해양 전문 엔지니어링 기관 양성, 레저선박 부품 의장센터, 편의시설 등 18개 사업
- 여수산단은 주력산업의 활로 모색을 위해 업종 다각화와 고부가가치화 추진('15~'24년, 3,520억원)
 - 안전인프라 및 관리기술 구축, 기업혁신R&D센터, 정주여건 개선 등 20개 사업

□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·농공단지 조성

< 현 황 >

- 국가산업단지 : 5개소(완료 2, 조성 중 3), 173,977천㎡
- 일반산업단지 : 31개소(완료 9, 조성 중 18, 실시계획 수립 4), 65,593천㎡
- 농 공 단 지 : 62개소(완료 52, 조성 중 10), 10,662천㎡

○ 산업단지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지원

- 공업용수 건설 : 장성 나노산단 등 7개소, 95억 85백만원
- 진입도로 개설 : 목포 대양산단 등 10개소, 770억 15백만원
- 여수국가산단 공장 증설 지원(대체녹지 조성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)

○ 노후 농공단지 기반시설 개·보수 및 신규 농공단지 조성

- 노후시설 개·보수 : 화순 동면 농공단지 등 14개소, 5,462백만원
- 농공단지 신규 조성 : 고흥 동강 농공단지 등 5개소, 6,136백만원

○ 산업용지 분양 활성화와 산업용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미분양 산업용지 국가 비축제도* 도입 추진

- 복합용지 제도를 활용한 맞춤형 산업용지 공급(동함평산단 등)

* 전남발전연구원에서 산업용지 비축제도 도입방안 연구 중('15. 3월 까지)

4 SOC 지속 확충

□ 고속도로 · 철도

- 광주~완도간 고속도로 건설은 '17년 상반기에 공사 착공, '22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(L = 69.55km, 1조 7,990억원)
 - 1단계(광주~강진, 51.75km)사업 실시설계 착수, '16. 12월까지 완료
- 호남고속철도 2단계(광주 송정~목포) 건설은 나주와 무안공항 경유 노선으로 실시설계('15년 600억원)를 조속히 추진
- 남해안철도(목포~보성) 고속화 사업은 조기에 공사 재개
 - 턴키구간(2, 7공구) 공사 재개('15. 2월), 일반공사(5개 공구)는 설계보완 후 공사 착공('15. 5월)
- 서울~제주 간 고속철도 건설과 서해안 철도 건설이 제3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지속 협의

□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와 흑산도 소형 공항 건설

-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 중국~무안~제주 노선에 대한 정기 노선과 정기성 전세기 운항 확대 등 국내·국제선 노선 유치
 - 활주로 확장(2,800 → 3,200m)을 위한 국고 지원 지속 건의(354억원)
-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은 '17년 공사 착공, '20년 개항 목표로 추진
 - 흑산도공항 기본계획 고시('15. 8월), 실시설계 용역('15. 12월)

□ 지역도로망, 연륙·연도교 건설

- 도로여건이 낙후된 지역의 국도, 지방도 등 도로망 지속 정비
 - 국도 32개 지구(준공 6, 계속 22, 신규 4) 30.7km, 확·포장 공사 시행
 - 국가지원 지방도(11개 지구, 961억원), 지방도(17개 지구, 700억원)
- 연륙·연도교 건설로 도서지역의 접근성 향상과 균형발전 촉진
 - '11~'17 / 104개 지구(완료 44, 추진중 26, 장래계획 34), 120.2km
 - 신안 다이아몬드 제도 6개 지구 중 새천년대교 추진('15년 547억원)
 - 국도 77호선 13개 지구 중 여수~고흥 간 등 6개 지구('15년 1,096억원)

5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

□ 재난·재해 예방태세 확립

- 유관기관과 합동, '재난·안전사고 줄이기' 운동 추진
 - 도로교통, 화재, 추락, 농기계, 해양 등 인명피해 많은 5대 분야 중심 안전의식 개선
- 재해예방사업 적기 추진 및 주요 시설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점검 강화
 - 지방하천(41지구), 재해위험지구(21지구) 등 166지구 정비(3,053억원)
 - 중대형 시설물 5,285개소(특정관리 4,179, 시특법 1,106)에 대해 계절별 시기별 점검
- 위기상황 대처능력 강화를 위한 '도민 종합안전체험관' 건립·운영
 - 학생, 도민 등을 대상으로 체험형 안전교육 실시(강진 성전, 9월 개관)

□ 신속한 대응역량 강화 및 안전망 확충

- 재난현장에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한 '골든타임'(5분) 정착
 - 긴급차량 골든타임 확보 훈련(연 2회), 차고탈출 20/30 훈련(연중) 등
-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전 119서비스 강화
 - U-119 안심콜 등 취약계층 돌봄서비스, 섬지역 「119나르미션」 운영 등
- 노후 소방장비를 적기 교체·보강하고 소방 안전망 지속 확충
 - 노후차량 교체·보강 : 소방차 38대 / 7,640백만원
 - 소방서) 무안 119 구조대) 무안·함평·완도, 안전센터) 해남송지, 나주빛가람
- 재난·재해, 방범 등 기능별로 CCTV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「CCTV통합관제센터」 단계적 구축('15년 : 보성·함평·영광·완도군)

□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

- 원전 지역자원시설세는 재난안전 및 방사능 방재사업에 중점 투자
 - 방사능 측정장비, 대피소 구호물자, 방사선 교육·훈련 등
- 방사능 비상계획구역 확대(10→30km)에 따른 주민보호장비·물자 확보
 - 대피소 확대 : 영광군내 25개소 → 인접지역 64개소
 - 원전사고 사전예방 및 감시시스템 확충 : 13개소 → 31개소



5 쾌적한 자연환경 보전·관리

- 맑고 쾌적한 물·대기환경 조성
- 깨끗한 자연환경 보전



5

쾌적한 자연환경 보전·관리

우리나라 최고의 청정지역인 전남의 아름답고 때 묻지 않은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하여 다음 세대에게 물려 주겠습니다.

1 맑고 쾌적한 물·대기환경 조성

□ 깨끗한 물 환경 조성

- 3대강(섬진강, 영산강, 탐진강) 수질개선사업 지속 추진
 -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비점오염 저감사업(83개소, 2,171억원)
- 콘크리트 구조물 등 치수목적 위주의 하천을 친자연형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수질개선 및 주민 친수공간 조성
 - ('15) 19개 하천, 490억원, ('16~'18) 58개 하천, 2,719억원
- 주암호 주변에 수질정화식물인 연꽃단지를 대규모로 조성, 수질개선 및 지역 주민 소득창출('15~'16, 생태습지 169천㎡)

□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

- 상수도 보급이 취약한 농촌과 섬 지역 수도물 공급 확대(124지구 1,018억원)
- 노후 수도관 교체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
 - 수도시설 개·보수의 국비지원사업 전환 지속 건의
 - 하수처리시설 확충 : 75개소 1,582억원, 하수관로 정비 : 310km 1,553억원

□ 온실가스 저감 및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

- '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운동' 전개와 그린리더 양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운동 확산('15년 2,000명 양성)
-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천연가스·전기자동차 보급 확대
 - 천연가스 자동차(58대, 15억원), 전기자동차(100대 보급, 30억원)
- 미세먼지 예·경보제와 오존경보제 등 대기 정보 상황을 도민에게 신속히 알리기 위한 대기측정망 운영
 - 대기측정망 16기(목포 2, 여수 5, 순천 4, 광양 4, 영암 1)

2 깨끗한 자연환경 보전

□ 자연생태공원 관리

- 전남 갯벌(전국 42%)의 체계적인 보전·관리와 관광자원 활용을 위해 국·도립 공원으로 승격·지정 추진
 - 무안·신안 갯벌은 국립공원으로 승격, 보성 벌교갯벌은 도립공원으로 지정
- 무등산권 국가지질공원과 연계한 지질명소 주변의 특산품 발굴·홍보로 제품의 브랜드 가치 향상(담양 한과, 화순 파프리카 등)
 - ※ (전남 지질명소) 화순 적벽, 운주사, 서유리공룡화석지, 담양 억새평전 등 11개소
- 자연보호 가치가 우수한 자연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생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자연생태공원 및 생태습지 등 조성
 - 15개소(광양 마동 생태공원, 해남 고천암 생태공원 등), 114억원

□ 범 도민 청결운동 생활화

- 도민이 자발적으로 생활주변을 청소하는 '범도민 청결운동' 전개로 도 전체가 공원처럼 관리되는 '깨끗한 전남 만들기' 추진
- 새봄맞이, 명절, 피서철 등 특정 시기별로 맞춤형 청소 실시
 - 각 시·군을 중심으로 민·관이 함께 참여
- 공중화장실의 상시 청결상태 유지를 위해 점검·관리 강화
 - 평상시에도 상시 점검(명절, 행락철, 시·군 행사기간 등은 점검 강화)

□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

- 매립·소각시설과 폐자원 재활용·자원화 시설 확충
 - 11개소, 131억원, 소각시설 설치시 폐열자원화사업 병행 추진 철저
- '70년대 초 지붕재로 다량 보급된 석면 함유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대상 건축물 확대(주택 → 창고·축사, 3,190동 107억원)
- 영농 폐기물 수거 보상금 지원 및 마을단위 공동집하장 설치
 - 폐비닐 18억원, 농약 빈병 5억원, 공동집하장 196개소(11억원)



6

총총한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

- 맞춤형 복지 및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
- 여성의 역량강화 및 건강한 가정 육성
-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인재 양성



6

촘촘한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

사회복지 안전망 확충, 저출산·고령화 등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
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「온정 있는 전남」 실현하겠습니다.

1 맞춤형 복지 및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

□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확대

- 저소득층의 최저 생활보장과 자활지원 등 복지 서비스 강화
 -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(수혜자 24천명 증가), 자활(4,916명) 및 의료급여(84천명)
- 주 소득자의 사망, 실직 등에 따른 위기가정 긴급 지원 강화
 - 지원기준 완화, 이통장·부녀회원 등을 활용한 ‘읍면동 인적안전망’(7,826명) 운영

□ 다양한 도민 복지서비스 강화

- 저소득 노인 기초연금 지급 및 맞춤형 일자리 제공
 -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%(월 2~20만원 지원, 314천명)
 - 6개 유형(공익, 교육, 복지, 공동작업, 제조판매, 인력파견), 22천명(476억원)
-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가사활동 지원
 - 노인돌봄서비스(기본·종합·응급안전/44천명), 생활관리사 인력 확충(969명)
 - 노인공동생활시설 운영(133개소), 생활·재가시설 운영(1,316개소)
-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등을 통한 공공요금 부담 경감
 - 태양광발전시설 설치(50개소), 경로당 냉·난방비 등 지원(283억원)
- 「100원 택시」 운영 확대 등 도민 중심의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
 - 「100원 택시」(11개 사군 235개 마을), 「버스공영제」(4개 사군, 타당성 조사용역)
- 여성농업인의 가사부담 경감과 영농 참여 확대를 위해 마을 단위 농번기 공동급식 확대 지원(506개 마을)
 - 조리원 인건비와 식재료비 지원 : (개소당) 연 25일 이내, 200만원 까지

□ 인권·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생활안정 지원

- 장애인 복지시설 생활자와 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「인권지킴이단」 구성·운영 및 예방활동 강화
 - ‘장애인 인권 지킴이단’ 운영 : 34개반 200명 / 교육 2회 500명
 - 시설 소재 읍·면·동사무소 및 파출소와 연대, 시설 운영 감시체계 기능 강화
-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소득보전 및 복지시설 확충
 - 장애인연금, 장애수당, 장애인의료비 등 지급, 장애인 일자리 확대(1,309명)
 - 복지시설 설치 확대(거주시설 3, 복지관 4, 직업재활 2개소)

□ 도민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

- 의료취약도서 주민 정기진료, 상담 등 의료서비스 제공 확대
 - 섬지역 병원선 운영(160개 도서, 10천명), 은퇴의사 활용 행복의원 운영(2개소)
-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으로 의료사각 지대 해소
 - 헬기 착륙장 건설(7개소),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(1대)
 - 동부권 권역응급의료센터 확충, 응급의료기관 운영(43개소)
- 정신 상담, 치료 등을 위한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확대
 -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추가 설치(5개소), 자살예방사업 추가(1개소)
 - * 치매환자의 치료·보호서비스 제공을 위한 「광역치매센터」 유치 추진
- 무료 예방접종과 취약계층 건강검진 지원
 - 영유아 및 노인 등 예방접종(627천명), 암 검진(319천명), 일반검진(9천명)

□ 통합의료산업 육성

- 통합의학 연구, 교육, 치유 서비스를 위한 「통합의료센터」 건립
 - '12.~'16, 302억원, 위탁운영기관 선정('15. 상반기), 통합의학 연구개발(5억원)
-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한의학 산업화
 - ‘한약제제 약효 표준화 사업(10억원)’, ‘한국토종자원 한약재 기반 구축(16억원)’ 등

□ 여성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사회참여 확대

- 경력단절 여성 등에 대한 취업·창업 활동 지원 강화
 - 여성 취·창업 박람회 개최(5회), 「여성새로일하기센터」 운영(8개소)
 - 여성 직업교육훈련(85개과정 2천명),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(3개소)
-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환경조성을 위해 돌봄서비스 확대
 - 시간제 보육사업 운영(15개소), 돌봄 서비스 유형 다양화(시간제, 종일제 등)
 - 출산 전후 여성농업인 대상 농가 도우미 지원(200명),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(12개소)

□ 전남 특색을 반영한 보육정책 추진

- 농어촌 분만 취약지 해소를 위한 「공공형 산후조리원」 설치
 - ‘공공형 산후조리원’ 개원('15. 6.), 취약계층 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(70%)
-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「국공립 어린이집」 확충(4개소, 16억원)
-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여건 개선을 위한 도 인증 어린이집 지정(50개소)

□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강화

- 결혼이민자와 자녀들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기반 마련
 - 다문화·건강가정지원센터 통합 서비스(3개소)
-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경제적 자립여건 조성
 - 국적·학력별 인력 pool 운영,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이주여성 취업코너 개설·운영

□ 아동·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

-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아동의 방과후 돌봄시스템 강화
 -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아동복지교사 파견(390개소), 급식비 지원(7,434명) 등
- 위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과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
 - 청소년 쉼터·일시보호소 운영(6개소), 심리적 외상 긴급지원팀 확대운영(22개소)
 - 학교 밖 청소년 통합지원 프로그램(두드림, 해밀) 확대·운영(16개소)

□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

- 도·농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농어촌 지역 교육환경 개선
 - 농어촌 중심교 육성(17개교), 혁신도시 학교설립('18까지 9개교) 적기 지원
 - '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' 제정 건의, 교육청과 교육협력관제 운영('15.1.부터)
- 열악한 사교육 환경을 보완할 차별화된 외국어 공교육 지원
 - 체험캠프(영어, 중국어), 해외 어학연수,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 등
- 도시학생들을 농산어촌 유학생으로 유치해 지역의 활력 증진
 - 농산어촌 유학센터 육성(5개소), 농촌유학설명회 및 단기체험캠프 운영

□ 지역인재 양성사업 운영·지원

- 지역인재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학사업 확대
 - 인재육성기금 확충('20까지 550억원), 장학금 지급(매년 1,600명)
 - 지역 출신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이자 전액 지원(매년 2천명)
- 서울과 광주에 재학중인 지역출신 대학생을 위한 공공학숙 운영
 - 남도(850명)·전남학숙(312명) 내실 운영, 광주시와 '제2 남도학숙' 추가 건립
- 도내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현장 중심의 특화 지원
 - 실용중심 도립대학 육성, 대학별 특화된 산학협력과 연구역량 강화
 - 대학생 공공기관 인턴십, 산업현장 견학 등 일자리 체험 기회 확대

□ 맞춤형 평생학습 체계 구축·운영

- 평생학습 지원을 위한 체계 구축 및 추진역량 강화
 - 전남평생교육진흥원 운영, 평생학습도시 지정(12시·군), 평생학습센터 운영 (15개소)
- 생애 단계별·계층별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발굴·지원
 -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콘텐츠 제공, 은퇴자·이주여성 등 재능나눔 교육
- 도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평생학습 정보망 운영
 - 다양한 학습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'다모아 정보망' 운영



7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도정 구현

- 상생협력과 대외교류 촉진
- 소통과 열린 행정 추진
- 친절한 민원 행정서비스 강화
-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
-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



7

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도정 구현

도민의 도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, 지역 간 상생·협력을 강화하여 소통과 청렴·봉사로 신뢰받는 책임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.

1 상생·협력과 대외교류 촉진

□ 상생·협력을 통한 지역간 공동발전

- '광주·전남 상생발전위원회'가 양 시·도 상생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운영(정기회의·실무위원회 연 2회 개최)
 - 제2 남도학숙 건립, '빛가람 혁신도시 활성화' 등 14개 협력과제 적극 실천
 - 지역현안에 공동 대응 및 실천가능한 협력과제 추가 발굴(3월·9월 회의 개최)
- 호남권 3개시·도의 상생·협력을 위한 '호남권정책협의회' 활성화
 - '호남권 관광벨트 구축' 등 12개 과제 실천, 신규과제 지속 발굴
 - 3개 시도간 상생 협력방안 논의를 위한 협의회 개최(상·하반기)
- 동서화합 포럼을 통해 경북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과제 실천
 - 조선감영 역사고도 관광자원화 사업 등 7개 협력과제 추진

□ 남북교류 협력사업 발굴·실천

-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변화에 대비하여 지방 차원에서 접근이 가능한 실질적인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착실히 준비
 - 5.24 조치 완회시 다양한 남북 교류사업 추진, 변화 없을 경우 협력기금 지속 조성
- 광복 70주년을 맞아 민간단체 중심으로 교류 가능사업 지원
 - 중국 연변을 매개로 남북 교류협력 돌파구 마련, 전남에서 함북까지 '땅끝 협력' 모색

□ 내실있는 국제교류 추진

- 외국 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다변화
 - 중국 등 인접 국가들과의 우호교류 및 자매결연 지역 확대 추진
- 인접국 자치단체 간 교류협력 행사에 참가해 공동발전 방안 논의
 - 한중포럼(6월, 저장성), 한일해협연안 8개 시도현교류 지사회의(11월, 사가현)

2 소통과 열린 행정 추진

□ 도민과의 소통 활성화

- 시·군을 직접 방문해 민선 6기 도정방향을 도민에게 설명하고 공유하는 「도지사와 도민과의 대화」 실시(2~4월)
- 도민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한 소통 정례화
 - 농어업인, 근로자, 자영업자 등과 '도지사 삶의 현장 속' 소통 릴레이(월 1회)
 - 도서벽지,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과 간담회(분기 1회)
- 지역발전을 위해 향우회 등 호남권 출향인사와의 유대 강화
 - 호남권 출향인사의 각 분야별(공직, 기업, 언론 등) 모임의 자율적 구성 유도
- 온·오프라인을 연계한 쌍방향 도정홍보 및 도민 참여채널 확대
 - 도민 명예기자 및 SNS 기자단 운영, 도 홈페이지의 쉽고 빠른 검색 강화 개편 등

□ 도의회와 소통·협력 강화

- 도의회 의장단과 정기적인 회동, 실국·상임위원회 간 수시 간담회 개최
 - 도지사-의장단 정례 회동(분기별 1회), 실국-상임위원회 간담회(수시)
- 도의회 정책대안이 도정시책에 반영되도록 지원·관리
 - 도정질문,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제기된 정책대안 카드화 관리
 -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및 처리결과 도의회 송부(반기별)
- 도의원 요구자료 외에 관심사항에 대한 자료 제공, 민원이나 지역행사 공유 등 의정활동 지원

□ 도민의 도정 참여 확대

- '공약이행 주민평가단'을 '도민 평가단'으로 확대 운영
 - 도민과 전문가 참여, 공약사항과 대규모사업에 대한 현장중심 평가
- 「정책자문위원회」을 통해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과 자문을 도정에 반영
 - 정기회의(연 2회), 분과별 수시 자문, SNS 등 다양한 의견수렴
-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정에 반영하는 '제안제도' 내실 운영
 - 도정 현안에 대한 테마별 제안(2회), 다양한 인센티브로 제안 참여율 제고

□ 동부지역 행정서비스 기능 강화

- 동부권 주민의 편의를 위해 동부지역본부에서 민원을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위임대상 민원사무 단계적 확대
 - 위임사무 확대 : '14년) 9개 실과 26종 → '15년) 15개 실과 83종
 - 위임이 되지 않는 사무도 동부지역본부에서 접수 후 본청 실과에 전달 처리
-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소통을 강화해 동부권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제2청사 역할 수행
 - NGO, 사업체, 유관기관, 각 직능단체 등과 간담회(매월 1회 이상)
 -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'동부지역본부 정책자문위원회' 운영

□ 취약계층 「인권상담 창구」 운영

- 다문화가정, 중국동포, 북한이탈주민 등의 인권 보장을 위한 「전라남도 인권상담 창구」 개설·운영
 - 인권침해 사례 접수·상담, 국가인권위·법학전문대학원·도 변호사 등 연계
- 「전라남도 인권센터」 운영을 통한 기능 확대(상반기)
 - 인권 옴부즈맨 채용 및 활동을 통해 인권침해 사건 상담·조사·개선 권고 등

□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

- 도청을 찾는 민원인이 해당 실과를 직접 찾아가는 불편없이 민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도민접견실(3개소) 상시 운영
- 온라인 「민원 24」를 통한 민원서류 발급·열람 편의 제공
- 전국에서 가장 빠른 여권 발급(7일→3일)으로 민원인 편의 도모
 - 토요일 및 야간 여권접수창구, 여권 우체국 계약 등기제 운영
 - 무안군과 신안군에 대해 여권발급 기관으로 확대 지정('15. 2월)

□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

-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채무관리 강화
 - 순세계잉여금의 30% 이상을 지방채무 상환자금으로 집행
- 지방채 상환기금 등 16개 기금을 종합 관리하여 여유자금은 고금리 채무를 상환하는 등 기금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
 - 16개 기금, 6,342억원(예치금 2,053, 융자액 3,413, 예탁금 876)
-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관리·활용으로 재정부담 경감
 - 고금리 지방채 차환('15년 3건 900억원), 여유자금의 고금리 예탁 등

□ 공기업·출연기관의 경영효율성 제고

- 전남개발공사의 경영진단을 통한 재무 건전성 강화
 - 경영진단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·기능 및 조직 재조정
 - '부채감축 목표'를 설정 강력 추진 ('14.) 125% → ('17.) 106%
- 출연기관의 성과관리 체계 구축으로 책임경영 강화
 - 경영진단결과에 따라 기관별 사업과 기능 재조정, 조직·인력 개편안 마련
 - 출연기관 경영평가 및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추진
- 출자·출연기관의 제규정 정비를 통한 경영의 투명성 제고
 - 도 조례와 출연기관별 규정 정비, 표준운영기준 마련

□ 자주재원 확충

- 미과세 자원 심층 조사·연구로 신세원 발굴, 세입증대
 -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(태양광, 풍력) 재산세 등 과세방안 연구(지방세연구원)
- 「모범납세자 선발제도」 도입으로 성실 납세의식 고취
 - 선발인원 125명('15. 1~2월) / 세무조사 유예, 금융 우대 등 인센티브 제공
- 공공자금 통합관리를 통한 이자수입 증대, 각종 부담금·수수료·사용료 현실화 등 지속 추진

□ 청렴 도정 실현

- ‘공직자 청렴도 관리조례’에 근거한 고강도 청렴도 제고대책 추진을 통해 부패 없는 청렴한 전남 실현
 - 비리 공직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, 공직자 청렴교육 강화(연중)
 - 청렴도 평가 대상 확대(3급 이상 ⇒ 5급 이상), 청렴도 우수자 등 ‘청렴대상’ 시상
- 비리발생 소지를 사전에 근절하기 위한 예방적 감사 활동 강화
 - 청백-e시스템 운영(상시 모니터링),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운영 활성화
 - 예산회계 분야에 대한 중점 점검으로 부패요인 차단 및 재정 건전성 확보
 - 신청을 받아 업무의 적법성,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 시행

□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

- 성과와 능력 중심의 공정·투명한 인사시스템을 운영하고, 인사교류 활성화로 조직의 변화와 혁신 유도
 - 재난, 투자유치, 일자리 창출 분야 등을 대상으로 「전문직위제」 도입
 - 취약부서 장기근속자 순환전보(3년), 징계자의 승진임용 제한 등 페널티 적용
 - 중앙 ↔ 도 ↔ 시·군 간 안정적인 인사교류 및 영·호남 간 교류 정례화 추진
- 건강한 직장문화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, 청렴도 내부평가 향상을 통한 조직의 자존감 회복(일하는 방식 개선 종합계획 수립·시행)

□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공직자상 확립

- 직장노조와 합동으로 봉급 끝전을 따로 모아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사랑 나눔 실천(도내 어려운 이웃 돕기 운동 전개 등)
-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, 재능기부, 농번기 일손돕기 등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
- 지역축제 시기에 맞추어 연가를 적극 활용토록 권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